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출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요즘 어떤 걱정이 제일 많나요? 시험, 성적, 진로, 친구 관계, 미래… 청소년 시기는 정말 생각도 많고 마음도 바빠요. 가끔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이 가슴을 꽉 채울 때도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걱정하는 네가 잘못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은 먼저 까마귀를 보여 주세요. 까마귀는 땅에 씨를 뿐리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또 백합화를 가리키며 아무것도 만들지 않지만,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즉, ‘노력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연도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선택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걱정과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 삶은 더 무겁게 느껴지지만,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걱정보다 더 크게, 실패보다 더 깊게, 미래보다 더 확실하게 불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불들고 “하나님, 저는 걱정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볼까요?

출일교회 가정예배부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다같이

말씀봉독 누가복음 12:22~34절 다같이

설교 격정보다 크신 하나님 설교자

말씀나눔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같이

★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양



▶ 찬양 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격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까마귀와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게 해 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 예수님이 까마귀와 들꽃을 예로 드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내가 요즘 가장 격정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격정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